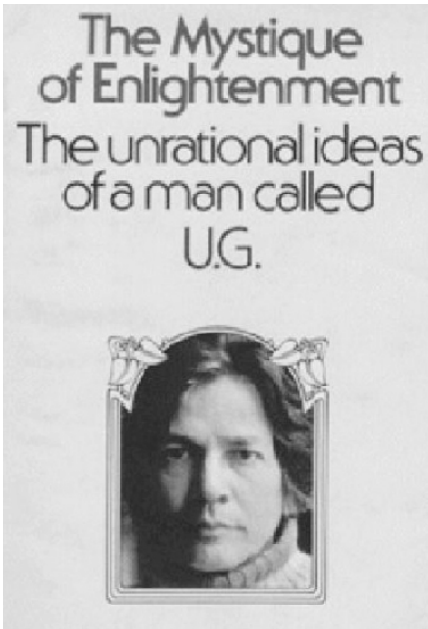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 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 (2부)

|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 그것뿐임을 U.G.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닌, 그저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질문 : 그 주고받는다든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U.G. : “나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질문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비슷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주는 나는 누구인가요? 당신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지금 사 니디 가街 25번지에 있지요. 당신이 내게 “사니디 가 25번지가 어디 죠?”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요. 내가 있다는 것 을 나는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하는 것 - 당신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U.G.는 그 후로 라마나 혹은 ‘종교계 사람들’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고, 철학 시험공부를 할 때를 빼고는 종교 서적에서도 손을 뗐다고 한다.)

나의 진정한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배경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심리학과 동서양 철학, 신비주의, 현대 과학 등 인간 지식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혼자 힘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상태가 무엇이지?”였습니다. 그 질문은 그 자체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왜 읽지?”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심리학은 내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가 심리학에 관심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란 것에 늘 호기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란 건 어디에

있지? 마음에 대해 알고 싶어. 나는 이 안에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책에서는 전부 마음을 이야기해. 자,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어느 날 나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프로이트, 융, 아들러 등등 수많은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정의나 설명은 전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 스스로,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나요?”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말게, (웃음) 그건 매우 위험한 질문이야. 시험에 통과하고 싶으면 필기를 하고 외워서 답안지에 그대로 써넣으라고. 그래야 학위를 딸 걸세.” 나는 학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대해 알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죠.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U.G.는 학위를 마치지 않고 마드라스 대학을 떠났다. 그리고 1943년에 결혼을 했다.)

그러다가 신지학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 배경 때문이었죠.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신지학회와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5, 6만 달러 정도로 돈도 넉넉했으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지요. 신지학회에서 강사로도 있어봤어요(U.G.는 결과적으로 인도 신지학회의 공동 사무총장이 되었음).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나라서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정보야.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가?”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강의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연단에서든 최고 연사로 손꼽혔습니다. 인도 내 모든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건 진짜가 아니야. 머리카락 있으면 이런 정보는 누구든 모아서 다시 읊을 수 있어. 내가 뭘 하

고 있는 거지?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 영 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어.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관심이 있긴 해. 그 어떤 것에.”

그때(UG가 신지학회를 떠날 즈음인 1940년대 말) J. 크리슈나무르티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요.

질문 : 선생님은 크리슈나무르티와 관계가 있나요?

U.G. : ‘크리슈나무르티’는 성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성은 지두 Jiddu 에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크리슈나무르티’는 꽤 흔한 이름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러 갔어요, 7년 정도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티쳐’ 사업 같은 것들 때문에 일종의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계선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월드 티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인데” - 그것은 일종의 사기였습니다. 나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일원은 아니고 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개입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곳에도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말이죠. 피상적이예요, 학자, 스승, 뛰어난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뒤에 무엇이 있지?” 제 의문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때 크리슈나무르티가 등장했고 7년 뒤 우리는 상황상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매일 그를 만났고, 모든 일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념이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심리학 용어를 골라 이런 용어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분석을 취하고서는 마지막에 가선 분석이 전문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런 분석은 사람들을 마비시킬 뿐이에요. 도
움이 안 됩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질문은 똑같
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쏟아내는 관념
에는 관심 없습니다. 관념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게 뭔가요? 이
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당신이 쏟아내는 관념, 그 뒤에 있는 것
에 관심이 갑니다. 저 자신을 투사했는지도 모르겠으나 당신은 (흔한
비유로) 설탕 맛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설탕을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요. 당신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설탕 맛까지 봤는지
는 확실치가 않군요.”

그렇게 우리는 수년을 싸웠죠. (웃음) 우리 사이에는 개인적인 차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직설적이고 정직한 대답을 원했지만 그는 나름대
로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방어적이었어요. “당
신이 방어하는 것이 뭐니까? 당신의 과거와 모든 것을 나무에 매달아
서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르러서 나는 주장했지요, “보세요, 당신이 쏟아내는 관념 뒤에 뭔가 있
기는 한 겁니까?” 그러자 그 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혼자서 그
걸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제게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전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7년을 낭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습니다.

(이 무렵 U.G.는 자신에게 심령력psychic powers이 생겨나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49세가 되기 전에 나는 능력이 많고 경험도 많았지만 그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보는 순간 그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지?” 가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그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전 그 능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결과가 뒤따랐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줬으니까요.

(U.G.는 여전히 강의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1955년에는 큰아들의 소아마비 치료차 부인과 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1961년 무렵 돈이 바닥났다. 그는 내부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하고 싶지도 않는 엄청난 동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6년이나 지속되었고 ‘재앙’(그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으로 끝났다. 그의 결혼이 깨졌다. 그는 가족을 인도행 비행기에 태우고 자신은 런던으로 갔다. 무일푼으로 런던에 도착해서 도시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을 거리에서 빈둥거리며 살았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가 마치 비탈길에서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는 당시 자신의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워보였다고 말한다. 후에 종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신비가들이 흔히 말하듯 ‘영혼의 암흑기’라는 말로 그 기간을 설명하려 했으나 U.G.의 관점에서는 “세속과의 투쟁, 유혹과의 투쟁도 없었고, 충동과 줄다리기도, 시적인 절정도 없었다. 그저 의지만 시들어갈 뿐”이었다.)

그 이후론 내게 머리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디 있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지?” 이것이 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머리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날

리는 낙엽처럼 구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어느 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삶은 무용지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구걸해서 먹고사는 부랑자였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 정신이 아니었지요. 런던에서 거리를 떠돌아 다녔어요. 거처도 없이 밤새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경찰은 늘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집이 없어요? 당신을 철장에 가둘거요.” 이런 식이었죠. 낮에는 대영박물관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대영박물관에서 뭘 읽겠어요? 읽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읽는 척했습니다. 부랑자나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사전을 보곤 했지요. 온갖 비속어들이 다 있었지요.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밤에는 길에서 떠돌았죠.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이드 파크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어디로 가나? 뭘 하지? 돈도 없고... 주머니에는 5펜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득 “라마크리슈나 명상센터에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 어쩌면 전부 내 자신의 투사였겠지요. 거리를 배회하는 것 말고 다른 방도가 없는데 경찰은 자꾸 쫓아오지,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라마크리슈나 명상 센터로 갔습니다. 스와미(힌두교의 종교지도자-역주)를 만나려고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밤 10시요. 당신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날 거라구요.” 나는 비서에게 꼭 그를 봐야 한다고 말했죠. 어떻게 해서 그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신문 스크랩북을 펼쳐보였죠. “이것이 접니다. 내 강의, 강의에 대한 뉴욕타임즈 논평, 나의 배경입

“그 상태가 무엇이지?”

“나는 그 상태에 있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것이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니다.” 어찌어찌 해서 나는 그 스크랩북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에 있을 때 내 매니저가 준비했던 겁니다. “이게 옛날의 겁니다. 지금은 이렇고요.” 그러자 라마크리슈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명상실에 들어가서 밤새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8시 이후로는 아무도 명상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전 갈 데가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방을 하나 구해주겠소, 오늘밤은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다음 날 12시에 피곤한 몸으로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제게도 점심을 주더군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식욕을 잃은 지 오래여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식사 후 스와미는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편집 일을 했던 조수가 정신병을 앓아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거든요. 나는 비베카난다 100주년 기념 잡지를 발간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격자인데 마침 잘 됐네요. 나를 도와주시면 되겠소.” 내가 말했습니다, “쓰는 것은 못합니다. 옛날이라면 편집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 방면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는 인도 철학 등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몹시 아쉬운 참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약간 휴식을 하고, 여기 머물러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요.” 내가 말했죠, “문서

작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만 하나 주시면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류일은 정말 못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같이 작업해서 잡지는 발행됐습니다.

그는 내게 돈도 줬습니다. 5파운드였죠. 다른 스와미들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생기자 “이것으로 뭘 할까?” 싶었어요. 한동안 돈 없이 지냈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대한 감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십만 루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다가 지금은 5파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 - 나는 그 돈으로 런던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죄다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지회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일을 하고 한 시에 점심을 먹고 극장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샌가 더 이상 볼 영화가 없어졌습니다. 런던 근교에서는 1실링 정도로 영화 세 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영되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남은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명상실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까?” 이 무렵 모든 것이 나의 몸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상 센터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투사가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처음으로 나는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을 하네. 왜 삼매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려 할까?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텐데 - 나는 이 모든 것을 거쳤잖아 -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저들이 저런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명

상은 사람들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건데.” 나는 그곳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몸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성기에서 출발해 머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에 구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무척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그것을 다른 것과 연관 짓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빌어먹고 남의 신세를 지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생각도 없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 “이런 삶의 방식은 잘못됐어. 잘못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머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의문만 계속됐습니다. 3개월 후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헤어질 무렵 스와미가 제게 돈을 주었습니다. 40~50파운드였지요.

나는 여전히 인도행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리로 가서 티켓을 환불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전처럼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지금은 주머니에 돈이 약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츰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이제 정말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웬지 나는 인도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족과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들 절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전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나는 오래 전부터 스위스에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좀 예치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스위스에 가서 돈을 인출한 다음 생각해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말했습니다, “리옹역으로 갑시다.” 그러나 취리히(내 계좌가 있는)행 기차는 파리동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왜 리옹역으로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는 나를 리옹역에 내려놓았고 나는 거기서 제네바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나는 150프랑쯤 가지고 제네바에 내렸습니다. 나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호텔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2주가 지나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 “빨리 돈 주세요! 청구서 어떡할 겁니까?” 나는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인도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인도로 보내 주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인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끝났습니다. 나는 스크랩북을 꺼내 보이며 “인도가 낳은 가장 유명한 강연자 중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재능에 대한 노만 카즌Norman Cousins과 라다크리슈나의 의견이 붙어있었습니다. 부영사가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비용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인도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인도에서 돈을 송금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동안은 여기서 지내시오.” 그렇게 됐지요.

그곳에서 발렌틴 드 커빈이라는 스위스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도 영사관에서 일하는 번역가인데 그날 접수 직원이 결근을 했는지 자리에 없어서 그녀가 접수대를 지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하기 시작하고 곧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스위스에 머물도록 주선해드릴게요. 인도에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한 달 후에 영사관은 나를 내보냈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어떻게 해나갔고 - 그녀가 나를 위해 스위스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약간의 돈과 연금 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넨Saanen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1953년 그 일대를 여행하다가 머문 적이 있었지요. 당시에 기차가 이곳, 자넨으로 들어서자, 내 안에 어떤 것이 말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여기서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이 내 삶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후 때문에 스위스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루지 못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때 J. 크리슈나무르티가 어떤 이유로 매년 여름 회합 장소로 자넨을 택했습니다. 그 자가 자넨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 살았지만 J. 크리슈나무르티 따위에 관심 없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흔아홉이 되기 전까지 발렌틴과 몇 년을 살았는데 그녀에게 물어봐도 내가 진리, 실재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했다고 할 겁니다. 나는 이런 주제로 그녀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탐색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추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미 있는 어떤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나는 그것을 ‘인큐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온갖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두통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아스피린을 얼마나 삼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편두

통 같은 알려진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잊으려고 아스피린을 한웅큼씩 삼키고 매일 커피를 15잔에서 20잔 마셨습니다. 하루는 발렌틴이 말하더군요, “뭐예요! 매일 커피를 15잔이나 마시다니. 돈으로 얼마지 아나요? 한달에 3, 4백 프랑 이라구요.” 어쨌든 그것은 나에게 지독한 일이었습니다.

온갖 재미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몸을 문지르면 인의 빛처럼 몸에서 불꽃이 일어났었어요. 발렌틴이 그 모습을 보러 자기 방에서 뛰어나오곤 했죠. 밤중에 자동차가 지나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빛이 났고(웃음) 난 그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지?” 그것은 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일론 옷이나 정전기 때문인 줄 알고 나일론 사용을 멈췄습니다. 나는 발끝까지 매우 회의적인 이단아였습니다. 나는 결코 어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본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꾸며낸 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 못했죠.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해탈이나 자유 혹은 목사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곳까지 가벼웠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였어. 인류의 모든 스승들과 구세주들은 빌어먹을 바보들이야. - 그들은 스스로를 기만했어 -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래서 그것은 나의 전 존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계속 되었습니다 - 이상한 일입니다 - 하지만 결코 나는 “내가 그곳에 도달했어, 가까워지고 있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에는 가까움도, 먼 것도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에 더 가까우란 법은 없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질문만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 이제 답을 찾았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붓다의 상태, 예수의 상태,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모든 존재가 끝났습니다.

습니다. 그것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벽돌 1톤과 같은 무게로 당신을 내려칠 뿐입니다.

1967년 4월, 내가 파리에 있었을 때 J. 크리슈나무르티도 우연히 파리에 있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옛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그래. 여기서 강연을 한다는데.” “좋아, 20년 가까이 소식을 못 들었는데, 가서 들어보지 뭐.” 그곳에 가니, 들어가려면 2프랑을 내라고 하더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2프랑을 내야하는지 몰랐네요. 자, 가서 신나는 일이나 하자. 스트립쇼나 카지노 드 파리 쇼나 가자고, 거기라면 20프랑이라도 내지.” 그렇게 우리는 카지노 드 파리에서 쇼를 봤습니다. 바로 그때 매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무용수인지,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다른 무용수가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내 안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런 것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무용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용수인지 무대에 다른 무용수가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이렇듯 나와 무용수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상한 경험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지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엄청난 강렬함으로 다가왔습

니다 - 감정적인 강렬함이 아니었습니다 -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찾지 못했고 의문의 강도만 더 강해졌습니다. (늘 이런 비유를 듭니다만) 이것은 왕겨와 같습니다. 왕겨더미에 불이 붙으면, 그것은 안에서 계속 탑니다. 밖에서는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지면 당연히 손을 데이죠.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무엇이지? 나는 그것을 원해. 크리슈나무르티는 ‘당신은 길이 없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붓다가 있었던 상태, 산카라가 있었던 상태, 모든 선생들이 있었던 상태가 무엇이지?”

1967년에 다른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J. 크리슈나무르티가 다시 강연 차 자넨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나를 끌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료야, 가서 들어보자.”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가보지 뭐.”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 했나? 그는 어떤 것, 어떤 움직임, 어떤 각성, 어떤 침묵 - “그런 침묵 속에는 마음이 없다. 행위가 있다” - 온갖 종류의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 30~40년 동안 난 도대체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저 사람이나 붓다, 예수 등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뇌하다니.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강연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지?”라는 질문이 다른 질문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무척이나 바래왔고 모든 사람에게서 요구했던 상태, 붓다의 상태,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알지?”

다음 날(U.G.의 49번째 생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인 자넨란트Saanenland의 일곱 개의 계곡과 언덕을 바라보면서 나무 밑 벤치에 앉아있었죠. 나는 그곳에 앉아있었습니다. 질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내 안에 이상한 구분이 있군 :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어. 그런 상태에 대한 지식 - 내가 읽고, 경험하고, 들은 것 - 그 상태를 보고 있는 바로 이 지식이다. 그래서 단지 그 지식이 그런 상태를 투사했던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봐라. 오랜 친구여, 40년이나 지나서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군. 네가 질문을 제기했을 때 네 마음을 투사한 것도 바로 그 지식이야. 너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알아’라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있어. 바로 지식이, 그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이 네 자신에게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지. 너는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너는 빌어먹을 바보라고.” 그래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상태라는 이상한 느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그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이 - 그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용돌이 속의 질문과 같습니다 - 거듭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질문만 그저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 이제 답을 찾았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붓다의 상태, 예수의 상태, 내가 처해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모든 존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상태야”라고 말했던 그 상태는 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공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질문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것이 전부입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였다.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재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omepage: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소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